

중국의 산업환경 변화와 우리 섬유산업의 대응전략

박 훈
(연구위원 ·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hoon@kiet.re.kr

〈요 약〉

중국은 우리 섬유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수입 대상국이며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중국은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의류 내수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섬유소재 수입수요도 중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획의 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우리 업계에 대한 추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섬유업계는 앞으로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 위주의 생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 섬유산업은 중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기능성·고품질 제품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업들은 품질검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에 아웃싱 하던 국내 패션메이커와 유통업체들의 고급 패션봉제 오더가 중국의 높은 인건비 상승 및 위안화 절상 등으로 국내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데, 고급 패션봉제 오더를 흡수할 수 있는 고급 패션봉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 내셔널 브랜드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1. 문제 제기

중국은 우리 섬유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수입 대상국이며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중국은 앞으로 제품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중고가 섬유소재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의류 내수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업체에게 기회의 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섬유업체의 중국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중국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우리 업체에 대한 추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섬유업체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중국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은 그동안 높은 가격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수출확대로 세계시장 잠식을 가속화하였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 인력조달의 어려움,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산업환경 변화와 섬유 수출입 구조변화, 우리 섬유산업의 대중국 분업관계를 살펴보고, 우리 섬유업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산업환경 변화와 섬유 수출입 현황

(1) 중국의 산업환경 변화

- ① 중국의 질적 고도화 정책이 우리 섬유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2001~

2005년) 기간 동안에 “섬유소재 자급률 향상”을 섬유산업의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섬유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이에 힘입어 다운스트림인 의류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섬유산업은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업스트림인 섬유소재까지 육성하면서 난공불락의 세계 섬유생산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섬유소재 산업을 육성하여 의류 생산에 필요한 섬유소재를 자국 내에서 저가로 조달함으로써 의류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고 섬유소재도 생산능력 제고에 힘입어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면서 우리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 잠식을 가속화하였다.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기간에 과거의 양적 성장(섬유 대국)에서 벗어나 질적 고도화(섬유 강국)를 섬유산업의 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용 섬유를 중점 육성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고성능섬유, 차별화 섬유, 친환경 섬유 등 화섬산업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생산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산업용 섬유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신섬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용 생산 비중을 2005년 13%에서 2010년 17%로 높인 데 이어 12·5 계획에

서는 2015년에 19%로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신섬유 비중도 2010년 6.3%에서 2015년 8.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질적 고도화 정책은 우리 섬유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섬유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중국은 지속 성장에 제약요인 많아

중국 섬유산업은 그동안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는데, 최근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생산인력 확보도 용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1월 노동법 개정으로 인건비가 25~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계약제로의 전환, 장기계약 및 종신고용계약 유도, 해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신노동법 조항은 임금인상보다도 기업들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자,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의 급성장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섬유산업의 인력이 서비스산업 및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유출되면서 단순 생산인력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등으로 수출경

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 위안/달러 환율은 2010년 6월 현재 6.8207로 2005년 초 및 2007년 12월보다 각각 17.6% 및 7.5% 하락하였고, 원/위안 환율은 177.4로 2007년 12월보다 무려 40.9%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08년 7월 이후 미국 달러화에 고정(6.82대)되어 온 위안화를 다시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한다고 발표한 이후 위안/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되어 7월 20일 현재 6.7782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 위안화 절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섬유산업은 앞으로 추가적인 외자유치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섬유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토지 임대료 면제, 조세감면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이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자유인정책이 약화된 상태이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들은 과다한 부실채권 보유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 섬유산업의 수출입 현황

① 수출증가세 둔화

중국의 섬유수출은 2005년 미국, EU 등의 섬유수입쿼터 폐지에 힘입어 2004~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23.2%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부터 높은 인건비 상승 및 위안화 절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약화되면서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시장이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9.9%나 감소하였다.

금년 들어서는 1~5월 기간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지나친 감소(-11.2%)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전년 동기비 19.3% 증가하였지만, 이는

제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하는데 그친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가격경쟁력 열세로 2009년 11.1% 감소하였던 의류 수출이 금년 1~5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비 12.4% 증가하였지만, 제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에 그쳤다.

반면, 직물은 의류생산 둔화에 따른 직물 내수 둔화를 만회하기 위한 업계의 수출확대 노력으로 전년 동기비 29.7%, 제작년 같은 기간 대비 7.9%

〈표 1〉 중국 섬유산업의 주요 분야별 수출입증가율 현황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2004~2007 (연평균)	2008	2009	2010 (1~5)	2004~2007 (연평균)	2008	2009	2010 (1~5)
화섬원료	59.1	9.1	-23.0	86.7	-7.3	-12.0	7.6	26.4
섬유사	20.3	4.8	-15.5	46.8	2.3	-8.5	10.2	37.8
천연섬유사	8.3	3.1	-10.0	31.4	7.6	-7.5	22.5	41.9
화섬장섬유사	51.0	12.4	-23.2	71.5	-1.8	-7.9	-6.7	37.7
화섬방적사	17.7	-2.6	-10.4	43.8	-4.9	-14.6	6.9	13.1
직물	17.0	15.1	-10.5	29.7	2.1	-0.7	-14.2	9.5
견직물	9.8	4.1	-4.7	24.7	-7.0	14.4	-8.6	5.9
모직물	6.9	0.3	-31.4	8.3	-4.3	6.7	-22.9	-0.3
면직물	12.1	17.4	-10.5	31.9	-0.1	-5.1	-18.1	-1.8
화섬장섬유직물	5.8	12.4	-10.2	23.1	0.6	0.8	-15.7	5.5
화섬단섬유직물	18.0	12.4	-10.0	31.4	-5.4	-4.8	-16.3	1.2
편직물	24.2	11.0	1.0	38.9	8.7	-0.7	-7.5	10.6
기타직물	33.0	22.4	-18.5	24.0	5.6	1.9	-12.9	24.8
의류	25.6	4.0	-11.1	12.4	8.1	14.6	-20.4	18.3
기타 섬유제품	20.9	24.6	0.3	23.4	13.9	10.0	-6.2	25.2
섬유산업	23.2	8.2	-9.9	19.3	2.2	-1.4	-8.0	19.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증가하였다. 특히, 편직물과 면직물이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② 수입도 부진 지속

2008년 1.4% 감소에 이어 2009년 8.0% 감소하였던 수입이 금년 1~5월 기간 동안에는 전년 같은 기간의 큰 폭 감소(-15.7%)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비 19.4% 증가하였지만,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야별로는 면직물, 모직물, 화섬직물을 중심으로 한 직물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화섬원료와 섬유사는 금년에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섬유소재 생산능력 확충으로 수입대체가 이루어진 데다 지난해부터는 의류생산 둔화에 따른 섬유소재 수입수요가 줄어든 데 기인한다. 중국은 섬유전체 수입 중 섬유소재 비중이 85.1%(2009년)에 달하고 있는데, 중저가 섬유소재 생산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중고가 섬유소재는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지속 하락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 일본, 홍콩,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이 중국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아시아 4개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산업용 섬유를 중심으

로, 그리고 EU가 천연섬유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와 함께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높은 수출 증가와 함께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가, 1997년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다가 200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20.3%에서 2009년 현재 12.8%로 5.5% 포인트 하락, 일본, 대만에 이어 3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대만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양국 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편직물, 천연섬유직물, 산업용 섬유 부문에서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편직물은 2000년까지 대만이 시장점유율 1위였으나 2000년대 들어 우리 니트의류업체들의 중국 진출 확대에 힘입은 안정적인 수출증가로 우리나라가 대만을 밀어내고 시장점유율 1위로 부상하였다. 타이어드직물도 우리나라가 중국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섬장섬유사, 화섬장섬유직물, 화섬원료는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경쟁 우위를 나타내며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화섬장섬유사, 화섬장섬유직물, 화섬원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가 각각 14.7%, 21.4% 및 10.1%

〈표 2〉

한국과 대만의 중국 섬유수입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

	한 국			대 만		
	2000	2005	2009	2000	2005	2009
화섬원료	29.2	14.5	10.1	16.6	17.9	13.4
섬유사	12.0	9.0	6.0	22.7	22.3	17.6
천연섬유사	3.2	2.5	1.3	4.6	6.3	8.3
화섬장섬유사	24.8	17.6	14.7	42.2	43	36.9
화섬방직사	6.0	5.4	5.9	27.0	19.1	13.7
직물	23.2	19.8	17.6	24.4	19.7	17.9
견직물	18.5	24.3	10.9	1.8	1.9	1.0
모직물	7.0	10.1	7.2	1.2	0.9	0.5
면직물	7.4	8.9	5.7	9.8	6.9	5.4
화섬장섬유직물	28.4	21.5	21.4	31.8	30.7	28.1
화섬단섬유직물	23.9	21.5	24.5	17.9	17.9	14.3
편직물	28.3	27.4	22.1	30.4	21.8	21.3
기타직물	31.9	24.5	19.7	36.1	26.4	20.9
의류	4.7	6.4	5.8	3.1	1.7	1.7
기타섬유제품	24.2	18.4	11.6	14.2	9.2	6.3
섬유소재	21.5	16.3	13.6	23.3	20.1	17.4
섬유산업 전체	20.3	15.5	12.8	21.5	18.2	15.3

자료 : KITA Database(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에서 작성.

로, 대만보다 각각 22.2%포인트, 6.7%포인트, 3.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3. 한·중 간 분업관계 분석

(1)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국내 섬유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자, 업체들이 투자처를 베트남 등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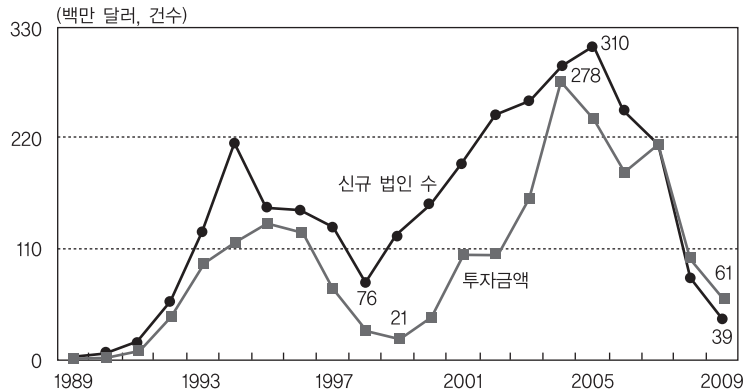
전하면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가 2005년 2억 7,800만 달러에서 2009년 현재 6,100만 달러로 1/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대중국 투자가 감소세로 반전되면서 국내 섬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비중도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섬유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직접투자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04년 73.7%에서 2008년 26.7%로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1〉

국내 섬유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2) 대중국 수출입 현황

① 대중 수출, 감소세로 반전

국내 섬유산업의 대중국 수출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1997년부터 높은 증가세가 한풀 꺾인 데 이어 2006년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대중국 수출은 2005~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6.2% 감소하여 2009년 현재 22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의 급감(-21.7%)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비 19.7% 증가하였지만,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3% 감소하였다.

대중국 섬유 수출이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것은 중국의 섬유소재에 대한 자급도 향상과 함께 중저가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가 확

대한 데 기인한다. 중국은 한국, 대만 등에서 수입을 줄이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EU, 미국 제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완제품 업체들이 경영부진으로 국내에서 섬유소재 조달을 줄인 것도 대중국 수출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의 의류수출 둔화에 따른 섬유소재 수입수요 둔화도 대중국 수출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섬유산업의 1위의 수출 대상국이지만, 우리 섬유산업의 수출의존도는 수출 감소로 2006년을 정점으로 소폭이나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섬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6년 21.6%에서 2009년 현재 19.6%로 하락한 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19.0%로 더

〈표 3〉 한국 섬유산업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연평균 증가율			
					수출		수입	
	2000	2009	2000	2009	2000~2005	2005~2009	2000~2007	2007~2009
화섬원료	374	144	5	14	-7.1	-13.7	21.0	-13.2
섬유사	320	240	304	575	0.4	-7.4	12.6	-9.2
천연섬유사	25	35	73	201	10.7	-4.4	17.2	-4.5
화섬장섬유사	247	180	76	187	0.9	-8.7	17.1	-9.8
화섬방직사	48	25	155	188	-11.7	-0.5	6.9	-13.0
직물	1,667	1,521	729	721	2.4	-5.2	3.2	-11.0
견직물	14	14	107	56	14.7	-14.9	-4.4	-15.8
모직물	22	30	12	14	11.1	-5.2	28.2	-54.8
면직물	97	89	165	247	13.4	-16.4	8.1	-6.7
화섬장섬유직물	419	390	57	63	-2.0	0.8	9.8	-23.7
화섬단섬유직물	87	96	253	106	9.4	-8.4	-7.9	-13.5
편직물	429	532	14	31	6.4	-2.4	12.8	-0.7
기타 직물	600	370	121	203	-2.3	-8.8	7.1	1.8
의류	153	248	870	2,224	16.4	-6.7	20.9	-17.7
기타 섬유제품	139	126	110	575	1.7	-4.5	31.0	-11.1
섬유소재	2,361	1,905	1,038	1,310	0.9	-6.2	6.6	-10.3
섬유산업 전체	2,653	2,278	2,018	4,109	2.1	-6.2	15.8	-14.6

자료 : KITA Database(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산업연구원(KIET)에서 작성.

〈표 4〉 한국 섬유산업의 대중국 수출입증가율 현황(금년 상반기)

단위 : %

		화섬원료	섬유사	직물	의류	기타 제품	섬유산업
수출	전년동기비	58.6	12.9	16.9	23.2	22.0	19.7
	재작년동기비	-3.0	-4.8	-3.3	-22.3	-12.9	-6.3
수입	전년동기비	46.4	72.0	39.9	18.6	40.4	32.9
	재작년동기비	-4.8	10.1	4.2	-24.3	-5.3	-12.1

욱 하락하였다.

이처럼 대중국 수출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반면,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후발 개도국으로의

섬유소재 수출이 더욱 확대된 데 기인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진출한 우리 의류업체들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인건비 상승의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소재 및 원부자재 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② 대중 수입도 2008년 이후 감소세
우리나라의 대중국 섬유수입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2000~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5.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국내 업체 생산제품의 역수입 증가 등에서의 중저가품 수입 확대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 중국의 노동법 개정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중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시아 개도국 제품에 비해 약화되면서 의류 등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대중 수입이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중국 직접투자가 줄어든 것도 의류 역수입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중국 섬유수입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5.0% 및 23.3% 감소하여 2009년 현재 26억 3,84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급감(-33.9%)에 따른 저효과로 전년 동기비 32.9% 증가하였지만, 제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2.1%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대중국 섬유 수입 감소로 전체 섬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07년 63.3%에서 2009년 55.5%로 크게 하락한 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53.1%로 더욱 하락하였다. 하지만, 견직물(93.4%), 면직물(76.4%), 화섬단섬유직물(69.2%), 의류(68.9%) 등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4. 대응전략

① 제품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12차 5개년 계획에서 산업용 섬유 및 화학섬유 육성 등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우리 업계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섬유업체는 앞으로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 위주의 생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우리 섬유산업은 중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기능성·고품질 제품 중심의 수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은 1990년대 말 이후 섬유소재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범용품을 중심으로 한 수입 대체를 확대하면서 한국, 대만 등으로부터 범

용품 수입을 줄이는 대신, 자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급·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급·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일본, EU, 미국 등지에 내주고 있다. 중국의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2000~2009년 기간 연평균)은 한국 -3.5%, 대만 -2.1%, 일본 -1.1%, 이탈리아 14.1% 및 미국 13.7%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 섬유업계는 중국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화섬업계는 고강력사, 고신축사, 극세사, 복합 기능성 소재 중심의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특히,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해 아라미드섬유, 나노복합소재 등 산업용 슈퍼 섬유 및 탄소섬유 등 경량화 소재 생산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직물업계는 경량·박지직물, 다중 복합직물, 고기능성 직물, 텍스타일 디자인 직물 위주의 생산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염색가공업계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원단이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가공 및 고선명(감성) 염색을 통한 차별화 소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친환경 염색가공 공정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류업계는 명품 자가 브랜드화를 통한 중국 고품질 시장을 공

략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화를 통해 내수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기업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품질검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자사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수준을 일관성 있게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제품 납품 시 품질 미흡에 따른 바이어들의 클레임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품을 출하하기 이전에 반드시 바이어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품질요구명세서)에 부합하는 품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검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② 고급 봉제 생산기반 구축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등으로 중국의 봉제가공 비용이 높아지고 생산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국에 아웃소싱하던 국내 패션메이커와 유통업체들의 고급 패션봉제 오더가 국내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회귀하는 고급 패션봉제 오더를 흡수할 수 있는 고급 패션봉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1980년대 말 이후 봉제업체들의 생산기반이 해외로 지나치게 이전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크게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주변의 창신동, 송인동 지역이 재개발될 경우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봉제업체들의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패션봉제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인 의정부 등지에 반환된 미군기지를 활용하여 패션봉제 전문 단지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는 염색업체와 니트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섬유소재가공연구소(양주), 신발피혁연구소 분원(동두천)이 입지해 있어, 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국내 내셔널 브랜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브랜드의

해외진출 교두보로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국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 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국의 소비패턴 및 수입구조 변화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력 실태를 분석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 및 대중국 수출업체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섬유마케팅지원센터(KTC) 중국 상해지사를 활용하여 중국진출 해외 바이어 및 중국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 영세 직물업체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는 KTC 지원 범위를 직물업체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